

가정예배 안내서

12

1994

충현의 만나

요한복음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기도제목

1. 기도운동이 불같이 일어나 성령 충만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2. 김창인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신성중 목사님의 건강과 영력 넘치는 사역을 위하여
3.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구역 조직을 통하여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5. 교회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의 질적,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6. 민족 복음화와 복음으로 인한 남북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7. 나라와 민족과 교단과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하여
8. 금년 한 해 동안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해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충현의 만나

1994년 12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요한복음 서론

예수님의 전기(傳記) 형태의 복음서인 요한복음의 헬라어 표제는 ‘요한에 의한’이며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복음’이란 말은 후대에 붙여졌다. 이 복음서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13:23, 19:26, 20:2, 21:7, 20)로 불려진 사도 요한이라고 인정되고 있다.

“요한은 공관복음서를 보충하기 위해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교회사가 유세비우스의 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점들을 감안해볼 때 요한복음의 저술연대는 공관복음의 저술이 완성된 주후 70년 이후 100년 이전으로 좁힐 수 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20장 31절 말씀대로 예수께서 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②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럼으로써 ③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일명 독수리 복음, 영적 복음이라 불려지기도 하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표적(sign)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일곱번의 표적이 소개되고 있다(2:11, 4:54, 5:2-9, 6:14, 9:1-7, 11:1-44). 요한복음은 “하나님 아들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인 사실 속에 감추어져 있는 신학적인 의미를 다루고 있다.

요한복음의 내용은 ①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1:1-18) ② 하나님 아들의 출현(1:19~4:54) ③ 하나님 아들에 대한 반대(5:1~12:50) ④ 하나님 아들의 제자 양육(13:1~17:26) ⑤ 하나님 아들의 고난과 부활(18:1~21:25)로 크게 나눌 수 있다.

1

(목) 한 알의 밀알이 되자

찬송 / 465장 본문 / 요 12:20-43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12:24)

예수님께서서는 고난없이 영광이 있을 수 없고, 죽음없이 열매 맺는 생명이 있을 수 없으며 굴복없이 승리가 있을 수 없다는 위대한 영적 진리를 설명하시기 위해 밀알의 이미지를 사용하셨습니다. 밀알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힘도 없고 쓸모도 없지만 땅에 심기위 죽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밀알이 죽을 때 거기에 아름다움과 풍성함이 모두 있게 됩니다. 만일 씨앗이 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좁고 음침한 땅 속에 숨겨지게 되는 것에 대해 불평할 것입니다. 그러나 씨앗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땅에 심겨짐으로써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치 씨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작고도 하찮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그 분이 우리를 심도록 허락해 드리지 않는 한, 그 생명은 결코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살기 위해 자신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열매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죽음과 장사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당신께 드리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적막함과 풍성한 열매, 생명을 잃는 것과 얻는 것, 자신을 섬기는 것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스스로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의 차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알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복된 성도가 됩시다.

▶ 기도 / 자신을 죽이므로 하나님께 대해 사는 성도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하나님께 흑자 보고서를 제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12:50)

본문에서는 ‘명령’이라는 말이 가장 흥미있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명령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명령이길래 영생입니까? 그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명령입니다.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하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초청은 명령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 아테네 사람의 영적 문제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의 시대에는 그대로 지나치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행 17:30)라고 말하였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오순절에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행 2:38)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가볍게 취급할 것이 아닙니다. 지연시킬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명령합니다.

이와같이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는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불행이 아니라 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의 명령을 따를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됩시다.

▶ 기도 /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소서. 김창인 원로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함과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권능을 칠 배나 더하여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13:17)

섬김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섬김의 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발을 씻겨주는 것은 당시에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밖에서 들어오면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새로운 섬김의 도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같이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때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행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행하게 될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웃을 섬길 때 진정한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이란, 진리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행복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진리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축복은 들음으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할 때 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함으로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너희도 이와같이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행함으로 복된 하루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 기도 /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함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살아 있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13:20)

가롯 유다가 있는 식탁은 어두움과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것을 아시고 불쌍한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함께 있던 제자들은 유다가 불신자이자 배반자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배반을 하는 그 마지막 시간까지, 유다는 자기가 팔아넘긴 예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유다에 대해 알고 계신 것을 모두 드러내셨더라면 제자들은 그를 적대시켰을 것입니다. 겻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일을 볼 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처음부터 유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요 6:64).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드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유다에게도 동일한 영적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열음을 녹이는 햇볕이 또 한편으로는 흠을 단단히 굳히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돈에 관한 주님의 말씀과 탐심에 대한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도적으로서 계속 돈계의 돈을 훔쳤습니다. 또한 불신앙에 대해 말씀하셨던 주님의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반역하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다의 발까지도 씻기셨건만 그의 굳은 마음은 굴복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심령속에서 위선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선을 모습을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에게 열려진 영적인 특권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 기도 / 위선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인 특권을 누리게 하소서. 94년도 마지막 달을 맞이하여 한 해를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 (13:34)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따라 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나쁜 길로 간다면 그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구나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그것은 보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가장 큰 사랑을 주신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생명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말씀처럼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여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과 영광이 공존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주님은 세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못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외치는 소리는 많지만 참사랑을 찾아 보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가야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제자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 기도 /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도를 따르게 하소서. 교역자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말씀의 준비와 양떼를 돌볼 때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 』(14:6)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새 집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택청약을 위한 많은 투자를 하고, 분양받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합니다. 잠시 잠깐 살 이 땅의 집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투자와 노력없이 준비된 영원한 소망이 있는 놀라운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그 집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집 주인의 안내를 받는 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인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으며 슬피울며 이를 갈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야 할 집들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므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유일한 소망되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하시던 일들을 같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일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새로운 능력과 힘을 얻게 하시는 유일한 원동력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님께서 예비하셔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 기도 / 유일한 소망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능력과 은혜를 입어 헌신된 삶을 살게 하소서. 모든 당회원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섬김의 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14:27)

힘들고 외로울 때 좋은 친구나 상담자가 옆에 있다고 하면 마음이 든든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에 보여지는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괴로워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 갑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하여도 재미가 없지는 않습니까? 오직 나는 혼자인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없으신지요?

여기에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참 평안과 만족을 주시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사 옆에 계십니다. 또한 다시 찾아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여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며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실천해야 하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의무감에 의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평안을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원리를 알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사람은 너무나 평화로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미 승리가 예약된 시험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 평안을 원하십니까? 사랑하십시오.

▶ 기도 / 주님께서 당부하신 사랑을 실천하면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쫓대를 정확히 하며 걸어가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직원들에게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 (15:5)

열매를 거두어야 할 시기에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하면 주인의 마음은 매우 아플 것입니다. 어쩌면 열매없는 나무는 불 속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 중에 열매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가 바뀔 때마다 열매가 없는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시고 반드시 열매가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로 알고 인간의 계획과 방법으로 일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떨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하신대로 실천하여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고 급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는 실천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결과만을 목적인 삶이 아니라 분명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분명한 헌신이 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신 것같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럴때야 비로소 참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을 닮기를 무엇보다도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추구합니다.

▶ 기도 / 추수날에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가지가 되게 하소서. 모든 위원이 한 해를 잘 결산하게 하시어, 새해의 사업들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돌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15:26)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된 지 3일만에 부활 승천하실 날을 불과 열흘도 앞두지 않은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당신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곧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사, 당신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게 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성령은 한 인격자이십니다.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26)란 말의 ‘그’는 성령은 한 인격자라는 것이며, 또한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27)라는 말씀에는 성령이 인격을 가진 사도들과 함께 활동하시는 인격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 정, 의를 가지신 인격이라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둘째, 성령은 신성을 갖춘 분이십니다. 만약 성령이 신성을 갖춘 인격자가 아니시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우상을 세워놓은 격이 되고 맙니다. 만약 성령이 인격을 갖춘 분이 아니시고 신성을 갖춘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들은 매사에 미혹되고 위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마 12:38; 롬 15:18, 19). 셋째,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권위와 능력이 다른 위(位)의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령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마음에 바로 모시려면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전인적으로 그 분을 사모하여야 합니다.

▶ 기도 / 인격자이신 성령님을 바로 믿고 인도받게 하소서. 각 교구일꾼들이 새진자들로 하여금 믿음생활 잘하도록 주의 사랑의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 』(16:7)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세 가지 사역에 대해 살펴보시다.

첫째,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토록 하십니다. 본문 8절을 보면 ‘그가 와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책망한다’는 말은 재판정에서 자기의 죄를 부인하는 피의자를 변론으로 설복시켜,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자백토록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성령께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둘째,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죄인된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아가 그 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고,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또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점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셋째, 사탄이 심판받았음을 증거하십니다. 11절에 나오는 ‘이 세상 임금’이란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엡 2:2), 사탄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께서 성육신으로 초림하시고 또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후 장사된 지 삼일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그의 악한 세력들이 패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가 우리 곁에서 죄를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사탄의 세력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더욱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갑시다.

▶ 기도 /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찬양대원들이 입술로 뿐만 아니라 삶 전체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 (16:20)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기쁨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도 기쁨을 누리며 삽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어떻게 다를까요?

첫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입니다(20).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특징은 곧 세상사람들은 자신들의 평안과 기쁨을 위해서라면 스스로 힘써서 죄없는 자라도 죽여 기쁨을 누리지만 성도들은 애매히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둘째, 해산 후의 기쁨입니다(21). 예수께서는 성도들이 누릴 기쁨을 해산 후의 기쁨으로 표현하셨습니다. 해산에는 고통과 기쁨이 동시에 있습니다. 하지만 해산의 고통이 두려워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는 여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컨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롬 8:18). 셋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22). 불의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일시적으로 죽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고 제자들에게 돌려 주셨을 때 그들이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서 주님을 탈취해 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그 누구도 다시는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쁨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슨 기쁨입니까? 혹 돈이나 세상 명예로 말미암는 기쁨은 아닙니까? 오늘은 주일입니다. 거룩한 이날에 우리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립시다.

▶ 기도 / 거룩한 주일 우리들의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이 어린 소자 하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양육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16:33)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 두고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이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제자들의 믿음을 담대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장차 환난을 당하더라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주위에서 정신없이 물려드는 외적 고난과 정신적 압박이 자신을 계속적으로 에워쌀지라도 주께서 나의 힘이요, 의존할 생명이심을 믿고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라도 사랑하는 자를 구원해 내신다는 굳은 믿음이 있어야 하고(단3:17),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단3:18). 둘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 이 말씀을 들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탄의 무리를 쳐서 승리하셨듯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 역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함을 누릴 것을 보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장차 닥칠 환난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이유를 성도들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며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환난과 위협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결코 환난으로 인해 믿음이 약해지거나 불안에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담대하게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증거했으며(행5:29), 기뻐하고 즐거워 했습니다(행 5:41).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와같은 승리하는 믿음으로 자라가십시오.

▶ 기도 /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어떠한 고난도 승리하게 하소서. 남녀전도회가 전도의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 (17:3)

요한복음 17장은 유명한 ‘대제사장 기도장’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이 땅 위의 사역이 무엇이며 우리를 향하신 그 귀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초기 사역에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신가를 보여 주셨다면 이 대제사장 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신가를 보여 줍니다. 가장 핵심된 내용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한 구원과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체험으로 뜨겁게 받아들이면서 생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에게는 구원과 영생의 삶이 주어집니다.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며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구원과 영생은 다른 인간의 철학이나 학문에서 심지어는 선행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고귀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받은 자만이 압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을 더욱 더 알아가는 구원의 감격스러운 삶을 누리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귀한 구원의 소식을 널리 증거하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구원의 고귀함과 감격을 잃지 않고 이 은혜를 나누어주며 살아가게 하소서. 서만수 선교사(인도네시아)의 사역을 주관하셔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이 잘 전파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 』(17:11)

오늘 본문은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본문은 주님의 중보기도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상세히 보여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이후에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는 이 기도문 속에서 몇 가지 신앙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 오늘도 주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보호 속에 이 땅위의 삶을 활기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중보기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중보기도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중보기도를 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실제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 받을 자를 위한 기도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끌어 안고 중보기도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이듯 우리도 하나로 연합되어야 함을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종국적으로 무형교회로서 주님의 재림의 날에 주님과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만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러한 교회의 미래의 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어둔 세상 속에서도 연합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 원리를 알아 소망 속에 성도를 사랑하며 섬기는 겸손한 신앙인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위한 중보기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육호기 선교사(독일)의 사역을 축복하사 프랑크푸르트교회와 비스바덴교회가 부흥 성장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 』(17:26)

오늘 본문을 통한 주님의 기도는 많은 내용을 품고 있는 난해한 성경 구절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내포하고 있는 주님의 중보기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연합된 사랑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주님은 택한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에는 많은 교훈과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영원한 보호하심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절대적인 은혜의 삶을 부여 받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는 주님과 연합하여 모든 것을 함께 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한 부인이 남편의 풍성함을 똑같이 누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결혼한 신랑 신부와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발견하여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망각하는 생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을 저버리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을 잃는 동시에 가장 무서운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끔직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루하루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에 나아가는 일이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하나님을 믿다가 세상으로 떠난 성도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주소서. 이준교 선교사(이집트)가 전개하는 자라이브넝마주이교회당과 선교젠타 건축이 잘 진행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11)

오늘 본문은 기도를 다 하시고 나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 위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 후 십자가를 지시고 구체적인 고난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영광으로 가는 길목엔 고난이 항상 있습니다. 주님도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고난은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구속은 이러한 주님의 자원하신 결단 안에서 구원이 구체화되고 완성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기피합니다. 또한 고난 받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잘못 믿어서 그렇다고 조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광으로 가는 길목에 들어서면 고난의 길목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고난 당하게 될 때 영광의 길이 얼마 멀지 않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때가 점점 가까와오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힘있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나를 위하여 고난을 먼저 받으신 주님께서 나의 고난의 현장에도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의 잔을 주님이 먼저 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우리는 나 혼자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을 의지합시다. 주님을 앙망하여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 한국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 고난을 함께 나누어지게 하소서. 김주경 선교사(이스라엘)의 유대인 선교가 결실을 맺게 하시고 성지연구소 건립이 잘 진행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에 베드로가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18:27)

겻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을 체포한 병사들은 대제사장의 집 뜰로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 모두 도망가고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만이 사람들 속에 섞여서 대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워서 뜰 안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신앙고백을 했을 때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곧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과 죽으심을 말씀하자 적극 반대를 하였다가 호된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목숨을 걸고 따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병사들에 의해 저항없이 체포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눈치를 보다가 묻지키는 여종에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 울기 전 세 번이나 부인하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살면서 생활 속에서 주님을 부인한 적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 인임을 숨기면서 마치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 기도 /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더욱 확신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게 하소서. 안석렬 선교사(수리남)가 현지에서 제2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18:33)

대제사장 안나스의 심문에 이어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심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기 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열린 산헤드린공회는 이미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권한이 있는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 자신들이 결정한 대로 사형을 선고해서 집행해주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그들이 내세운 예수님의 죄목은 신성모독이 아니라 로마황제를 대항하여 반역하고자 한다는 정치적인 죄목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이들의 태도는 예수님을 죽이고 자신들은 로마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라는 두 가지의 목적을 겨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 총독은 평소 자신의 관할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에 대해 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에게 로마에 대한 반역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죄목으로 재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며 예수님을 심문한 후 유월절 특사로 석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발은 의외로 거세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유지하고 싶어 분명하게 죄가 없는 자를 고난을 받게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항상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자가 되게 하소서. 김은태 선교사(중국)의 중국 본토어 훈련과 광주, 심천 지역에서의 양육 사역이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19:16)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에서 아무 죄명도 찾지 못한 빌라도는 예수를 유월절 특사로 석방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시도는 백성들의 반발로 인해 바라바를 석방함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빌라도는 본문의 초두에 나오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책찍질하고 능욕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만족감을 주어 그들의 감정을 무마시킨 후 예수님을 놓아주려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신의 시도가 또 다시 실패하자 그는 결국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사형 선고는 예수님이 무죄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비호할 경우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약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유대인들의 협박에 굴복한 것입니다. 즉, 빌라도는 저들로 인해 자신의 정치적 지위가 위협을 당하고 더욱이 예수님을 용서하면 자신도 황제에 대한 반역자가 된다는 사실을 가볍게 취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는 책임을 손을 물로 씻음으로 유대 군중들에게 전가시킨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도록 허락했던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세상의 권세와 명예,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모아서 자신의 생을 영위해보려는 태도를 보이므로 죄없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가장 어리석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언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추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과 손해가 뒤따른다 할지라도 진리와 의를 사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우리들이 항상 진리 편에 서게 하소서. 유명세 선교사(일본) 삿포로에서의 의료 사역을 통해 일본인들의 마음에 복음이 전달되도록 인도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 』(19:30)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께서서는 이제 마침내 십자가상의 죽음을 맞이하심으로 인류 구원을 위한 자신의 대속 사역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각각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반역죄로 처형당함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조롱하려는 의도로 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심을 넘어서 온 인류의 메시아이심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공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을 제비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 행동은 구약에서 예언한 그대로 성취된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좋은 일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서는 제자인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시도록 부탁하는 효성스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최종적 승리의 외침이자 성부 하나님께 대한 성자의 최후의 보고였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뜻과 수많은 예언들을 몸소 이루셨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죽음으로써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이 죽음은 사망 권세에 의한 수동적인 죽음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한 능동적이며 자발적인 고귀한 죽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십자가를 능동적이며 자발적으로 지고 가는 것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기도 /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김형선·한영자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의 문서 선교, 외향 선교가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일이 이론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19:36)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계실 때에 양 옆에 두 강도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들의 죽음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다리를 꺾어서 확인하였으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다리를 꺾지 않고 이미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서 그 옆 구리를 창으로 찌르자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뼈는 꺾여지지 아니하였는데, 이것은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즉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고 한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2:46과 민수기 9:12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고 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전에 어린 양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서 구원얻은 것처럼 마귀의 손 아래 묶여 있던 인생들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천국시민입니다. 우리의 대장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처럼 확실하지 않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불안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일획도 어김없이 성취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위로가 되며 소망이 되며 확신을 주는 진리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반드시 성취되고야 맙니다. 의심하고 있는 말씀이나 확신이 되지 않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그러한 자리에서 100퍼센트 믿고 의지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 기도 /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게 하소서. 이기성·박정아 평신도선교사(호주)가 현지 적응을 잘하게 하시고 전도의 문도 열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19:38)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 새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물론 아직 그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그의 이러한 행동은 담대한 신앙적 행동임에 틀림없는 일입니다.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담대한 신앙적 결심과 행동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담대한 신앙적 행동을 하기가 어렵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위협을 이겨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붙들렸을 때 “벌칙이”(마 26:58) 따라 갔습니다.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참으로 담대한 신앙적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담대한 신앙적 행동은 계속적인 신앙생활의 결과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는 두말할 필요없이 훈련이 있어야만 합니다. 많은 대중들 앞에서 연주할 정도의 피아니스트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연습과 훈련을 닦는지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히 12:1)만 합니다.

현재 나의 신앙적 삶은 얼마나 담대합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 하지는 않습니까? 부끄러워 하거나 후회한다면 회개하고서 이제부터는 담대한 신앙인이 됩시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의뢰하고 끊임없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가 됩시다.

▶ 기도 /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고은빈 평신도선교사(케냐)가 팀선교사역을 할 때 협력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하시고 맞사이족의 선교가 열매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20:9)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자신이 유대 종교지도자들의 증오를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을 미리 말씀 하셨습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무서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 사실 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 뒤에는 반드시 내가 죽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마 16:21)라는 말씀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처럼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 체포, 십자가형을 당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믿지 않던 제자들의 생각과는 영 다른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제자들은 ‘아, 우리 생각이 틀렸구나. 모든 일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니까 다음은 부활이 있겠지!’ 기대를 하였을 법도 한데, 제자들의 생각은 잠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자 이들은 놀라고 실망하여 다 숨어버렸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직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부언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알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의 인정 여부에 상관없이 역사적 사실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 기도 /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감격을 체험하게 하소서. 김철영 평신도선교사(일본)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하시고 오사카영광교회와의 협력 사역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20:18)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무덤에 와보고 ‘어, 진짜 없네’ 하는 반응을 보이고는 다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마음이 더욱 안타까워진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며 서 있다가 혹시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무덤 안을 들여다 보는데 그 곳에서 두 명의 천사를 발견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뒤에 인기척을 느끼고 주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한 마리아는 주님께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마리아는 곧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부활을 전혀 예상치 못하고 울고만 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 주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라는 이름을 부를 때 ‘답오니’라고 응답할 수 있는 교제, 이것은 마리아에게 믿음의 새로운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말 대신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이름을 부르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음성으로 우리 주님을 부르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 기도 /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체험을 주소서. 김영대 선교사 (중동권) 위에 함께 하시사 언어 훈련 등 준비하는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1:21)

본문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은 일찍부터 있어왔습니다(사 7:14). 이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시면서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자연적 출생의 과정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의 죄를 대신하시려면 사람처럼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우리의 죄를 없애시며,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고, 다시 부활하신 것도 우리의 죄를 속죄하심을 확증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하여 어린 아기로 잉태 되시면서 경건한 요셉과 마리아의 보호를 받으셨으며, 이를 위해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마 1:20).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부활하셔서 하늘 나라에 가셨지만,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함께 동행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곧 신앙의 출발입니다.

▶ 기도 /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리며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돕고 있는 모든 개척교회와 미자립 교회가 부흥 성장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2:11)

본문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두 가지 세상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메시아(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사들은 경배드릴 예물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당시 가장 귀중한 예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최상의 경배와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헤롯왕은 예수님의 탄생을 새로운 정치적 인물의 탄생으로 간주하고 사람들을 시켜 죽이려고 자기에게 그 장소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보전하시려고 박사들에게 꿈을 통하여 지시하셨습니다. 이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가 들어오면 모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 우리는 모두 엎드려 그 분께 경배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인류의 스승으로 격하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기도 / 악한 세력에 맞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께 최상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소서. 모든 장애인들에게 예수님을 통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느끼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 (20:19)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키는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인사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로서, 본문에 세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평강은 두려워하는 사람이나 불투명한 미래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한 제자들은 마음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는 격려를 하신 것입니다. 물론 평강(shalom)은 유대인들의 고유한 인사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인사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제자 중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았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현대인의 전형입니다. 당연히 실험되고 증명된 것만 인정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역시 평강을 말씀하시며, 도마에게 손가락으로 확인해 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강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것입니다. 평강을 가진 사람만이 평강으로 인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저희에게 평강과 믿음의 복을 명하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사랑의 마음으로 도와주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 』(21:1)

본문은 디베라 바다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도록 도와주신 후에 함께 아침 식사하시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무엇을 해야할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전직이 어부인지라 다시 갈릴리(디베라)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번째 나타나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셔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는 베드로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겹옷을 입은 채로 바다에 뛰어들어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으로 아침 식사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하여 자신의 부활이 완전한 것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행 1:3). 그러나 아직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게 하고, 식사까지 준비하시는 자상하신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은 가득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실 뿐 아니라 당장 일용할 양식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상하신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 기도 / 예수님의 자상하신 사랑과 격려가 우리 가정에 풍성하게 하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상한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내 어린 양을 먹이라 …… 내 양을 치라 ……』(21:15-17)

예수님의 목양 명령은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에 근거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양들을 치는 것과 먹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요소는 목축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건으로서, 당시 목축 문화권에 살았던 베드로에게는 달리 해석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당시 목동은 목자장의 지시에 따라 할당된 양들을 적들로부터 보호하고 항상 풍부한 꼴을 먹여야 하는 임무를 완수해야 합니다(벧전 5:2). 그렇다면 이 목양 명령을 받은 베드로도 주(主)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공식적인 목양 명령을 위임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장래에 관해서도 비장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순교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을진대(10:11,15), 그 양떼를 위탁받은 베드로 역시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양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날의 잘못을 깨닫고 새롭게 출발하게 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면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온전히 자신의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는 새로운 영적 안목을 겸비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벧전 1:5,6). 우리 모든 성도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 어떠한 일에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소서.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사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21:22)

자신의 험난한 장래에 대해 계시를 받았던 베드로는 사도 요한의 장래는 어떻게 하는 호기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호기심을 가볍게 질책하시면서 상관치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해를 불러 일으킨 듯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살아 있을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이 초대 교인들 사이에 널리 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신념에 더욱 확신을 굳게 한 것은 사도 요한이 다른 제자들보다 오래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 교인들은 사도 요한이 죽기 전 예수님께서 도래하실 것을 대망하면서 핍박과 환난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당시의 그릇된 신념에 사도 요한은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이 신념의 발생 진원이 되는 당시의 정황들을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초대 교인들의 그릇된 신념은 베드로의 오해(23절 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힘과 동시에 예수님의 진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사도 요한을 재림할 때까지 있게 할지라도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던 반면 베드로는 사도 요한이 재림 때까지 살 것이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23절). 물론 이 사건은 단지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시대가 혼탁하고 어수선했을수록 이단 사설의 종말론이 득세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거니와 성도들은 항상 근신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 기도 /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도의 신앙을 견게 하소서. 한해를 마감하면서 주님 안에서 감사로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따라……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4:24)

바울은 먼저 구원받은 성도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이방인의 낡은 생활과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없이 행하며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으로 인하여 성도가 된 지금에 와서는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따라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땅히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 새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아 새사람이 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강조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진리 자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배우고 그를 닮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멸망의 길로 가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새사람으로 재창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별하여 부르신 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동시에 이웃간에도 화해를 이룬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지 못한 것과 이웃간에 화해를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새해에는 새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 더욱 더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 지난 한 해 동안 잘못된 모든 죄를 용서해주시고, 새해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신실하심으로 94년에 함께 하신 하나님, 95년에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허락하여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 1) 찬 송 다같이
- 2) 성경봉독 사회자와 교독
- 3) 구역공과..... 인도자
- 4) 기 도 인도자
- 5) 주기도문 다같이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2 과

구원에 대한 서론적 이해

· 요 절 : 로마서 8장 29,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과를 각 개인에게 적용하는 성령의 사역에 관한 이해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속적 사역은 완성되었지만 이것이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구속이 어떻게 죄인들에게 주관적으로 적용되는가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며 이것을 구원의 과정, 혹은 구원의 서정이라 부른다.

구원의 서정

구원의 서정은 시간적 서정이라기보다는 논리적 서정인데 이것을 순서별로 보면 예정-소명-칭의-영화이다(롬 8:30).

구원에 대한 견해

구원에 대한 견해는 크게 로마 가톨릭의 견해, 루터교의 견해, 알미니안교회의 견해, 개혁신교회의 견해 네 가지가 있는데 개혁신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다른 세 교회는 믿음을 강조한다. 물론 이 둘은 다 중요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며 믿음은 바로 그 구원을 받는 손이다.

구원과 성령 사역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성령의 부르심과 보증하시는 사역을 통해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 완성되는 것이다.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되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 각 개인에게 전달될 수 없는 것이다.

구원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이다. 왜냐하면 이 신비적 연합이 구원서정에 있어서 기본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 신비적 연합이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에 동참하였다는 의미이다.

제 13 과

구원의 첫번째 단계는 소명이다

· 요 절 :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소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일반적 소명이며 다른 하나는 효과적 소명이다. 일반적 소명이란 외부로부터 오는 소명으로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반면 효과적 소명은 죄인들을 회개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효과적 소명에는 적어도 세 가지 특성이 있다

이것은 첫째, 예정된 자들에게만 임하는 위로부터의 부르심이며 둘

째,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앞에 나오게 되는 유효성 있는 부르심이며,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불변성을 가진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일반적 소명을 하시는가

여기에는 네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택함을 받은 자들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둘째, 창조자로서 봉사를 요구하시는 통로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셋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존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넷째, 인간들의 핑계를 없애기 위해.

소명의 구성 요소

첫째, 예수님이 인류의 구속자라는 복음의 진리 둘째,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 초청 셋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용서와 구원의 약속이 있다는 내용

제 14 과

구원의 두번째 단계는 중생이다

· 요 절 : 요한복음 3장 3절

『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
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

성경은 중생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말씀한다(요 3:3, 5)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중생을 초자연적인 변화로 보지 않고 성격이
선하게 바뀌어지는 것으로만 본다. 왜냐하면 이들은 인간의 전적타락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성경은 왜 중생의 필요성을 말씀하는가

첫째, 칼빈의 말처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인

간의 전적 무능 때문에 인간은 중생해야 한다(엡 2:1).

성령과 중생

무엇이 인간을 중생하게 만드는가? 그것은 인간의 의지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며 바로 성령이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죄인의 협력이 없이는 중생할 수 없다고 생각하나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므로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협력도 불가능하다.

그러면 중생의 특징은 무엇인가

중생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으로 전인적 변화이며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진다.

제 15 과

구원의 세번째 단계는 회심이다

· 요 절 : 사도행전 3장 19절

『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
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

구원은 중생으로 끝나지 않는다. 중생은 새로운 탄생에 불과하며 그후에 새로운 출발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회심이다.

회심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첫째, 과거 죄에 대한 회개

둘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다.

회개

그러면 회심의 첫번째 요소인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는 지, 정, 의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즉 먼저 내가 지은 죄가 어떤 것이며 오염의 정도와 허물의 크기를 지적으로 알아야 하고 다음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일에 대해서 죄스러워하고 슬퍼하는 감정적인 면, 그리고 결단과 함께 순

종하는 행동적이며 의지적인 면이 있어야 한다.

믿음

회심의 두번째 요소인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이란 진리의 인정과 인격적 신뢰를 담고 있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첫째, 내가 믿는 분과 성경을 지적으로 아는 지식이다. 둘째, 그 지식에 대한 동의, 즉 성경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정적인 면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내어맡기는 헌신으로 내가 지고 있는 죄의 짐과 근심 등 내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는 것이다. 이것은 믿음의 의지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다.

확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확신이다. 확신에는 객관적인 확신과 주관적 확신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고, 후자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객관적 확신만을 주장하고 율법폐지론자들은 주관적 확신만을 주장하는데 이 둘은 모두 일부만 보는 잘못된 것이다.

제 16 과

구원의 네번째 단계는 칭의이다

· 요 절 : 로마서 4장 25절

『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
니라 』

칭의란

칭의란 우리가 객관적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해주시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재판적 행위를 말한다. 칭의의 성질은 우리 편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법적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칭의란 내적 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적 선언이다.

칭의의 특징

칭의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죄책이 제거되고, 믿음과 함께 단번에 이루어지며, 성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역사이다. 그러나 칭의와 함께 성령의 사역인 성화가 시작되면서 실질적으로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

칭의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것이므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둘째, 의롭다 함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를 옷입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양자권), 영생을 누리게 된다.

칭의와 회개

성도들은 의롭다 함을 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회개가 필요하며, 반복적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하게 되고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

칭의와 심판

의롭다 함을 받은 성도는 최후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 이 땅에서의 칭의는 개인적인 칭의이므로 공적인 영원한 칭의의 선언을 위해서는 성도들도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MEMO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 1) 찬 송 다 같 이
- 2) 성경봉독 사 회 자
- 3) 메시지 낭독
- 4) 기 도 다 같 이
- 5) 주 기 도 다 같 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
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